

기업들의 신사업기회 발굴,
공공 R&D 성과의 사업화 촉진,
나아가 우리나라 ICT 산업의 지속가능한
성장성 확보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

ICT는 타 산업 및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가능케 하고, 또한 신산업 생성의 촉매역할과 성장과정에 필수적인 기반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창조경제화를 견인하고 있는 동력원입니다. 따라서 ICT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어 우리 경제가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로 도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, 확산 채널의 구축뿐만 아니라 융합과 기술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주체들 간의 협력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세계 경제는 자본과 노동력 중심의 경쟁체제에서 정보와 지식 중심의 경쟁체제를 거쳐 고객가치를 중심으로 한 융합 경쟁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경쟁체제하에 ICT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경쟁우위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의 신속한 창출과 전 산업으로의 확산, 그리고 확산된 지식이 가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·경제적 생태계의 조성이 필수적입니다.

이에 ETRI는 원천·핵심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,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관계 구축에도 보유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, 이는 최근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인 '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신 시장과 일자리 창출' 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. ETRI는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 지원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2008년부터 중소기업들의 사업기회 발굴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"ETRI 기술예고제"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. "ETRI 기술예고제"는 ETRI에서 개발 예정인 기술의 개요, 개발 일정, 예상 결과물, 기술성, 시장성 및 활용 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기업들에게 알려 주는 제도입니다.

이는 대외적으로는 기업들이 ETRI가 개발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대내적으로는 연구 분야 별로 융합방안 모색 및 기술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ETRI는 국가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대형 융·복합 연구과제 수행 능력과 함께 R&D 경험의 활용, 그리고 IPR 관리역량을 모아 산·학·연 협력연구를 선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특히, 국가 전략기술 아젠다를 선도하는 개방형 협동연구(Open R&BD) 플랫폼 구축과 함께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술사업화전주기 지원체계로 “기술사업화플랫폼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‘2016년도 ETRI 기술예고제’는 ETRI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 실행의 일환이며, 사업화 주체인 기업에게 널리 활용되어 기업들의 신사업기회 발굴, 공공 R&D 성과의 사업화 촉진, 그리고 나아가 우리나라 ICT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성 확보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 끝으로, ‘2016년도 ETRI 기술예고제’의 발간을 위해 노력해주신 사업화본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, 또한 사회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주야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ETRI 동료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.

2016년 7월

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이 상 훈